

제4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공동성명서

2012년 7월 16일 대한민국 부산

1.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의 교통물류 장관들은 2012년 7월 16일 한국의 부산에서 제4차 교통물류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삼국은 지난 세 차례 회의에서 합의한 실천과제의 진전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유익한 토론을 하였으며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우리는 지난 세 차례 회의를 통해, '막힘 없는 물류체계 실현', '환경친화적인 물류 구축', '물류보안과 물류효율성의 조화 달성'이라는 물류협력의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개의 실천과제를 채택했다. 우리는 12개 실천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도출을 위하여 공동 실무그룹을 구성하였으며, 이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각 실천과제의 실질적 협력방안 도출 및 이행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었다.

3. 삼국 물류협력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실천과제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승인했고,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3.1 막힘 없는 물류체계 실현

3.1.1 트레일러 샹시의 상호주행은 해상 육상 운송 연결을 통하여 물류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우리는 트레일러 샹시의 삼국 간 상호주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기 체결한 협정을 바탕으로 트레일러 샹시의 상호주행을 활성화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은 2012년도 하반기에 시작될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시범사업 수행 가능성에 대해

공동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우리는 삼국간 트레일러 샷시를 통한 해상 육상 복합운송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3.1.2 우리는 삼국 간 효과적인 물류정보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항만 정보 공유 서비스 강화 개선에 노력하고, 물류정보 공유의 표준을 적극 개선하며, 물류정보 공유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물류정보 공유 서비스의 범위를 해상분야에서 도로, 철도, 항공 그리고 육상 해상 복합운송 분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것이며, NEAL-NET 발전에 적합한 운영 체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3.1.3 삼국 간 물류분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는 물류 관련 정책과 규정, 선진기술 및 연구결과를 NEAL-NET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3.1.4 우리는 저비용 환경 친화적 물류체계 수립을 목표로 하는 재활용 팔레트 시스템을 실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재활용 팔레트 통관제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연구와 재활용 팔레트 공동사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삼국 간 재활용 팔레트 관세 면제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물류기업의 투자를 위한 가이드북 출간을 토대로 동북아시아 물류시장을 무대로 하는 삼국의 물류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제도 및 절차상의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3.1.5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팔레트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제3차 회의에서 달성된 바 있는 팔레트 크기의 표준 개발과 더불어 팔레트의 재질 및 강도 등의 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도 장려할 것이다.

3.2 환경 친화적 물류 구축

3.2.1 우리는 환경 친화적 물류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전 세계적인 과제라는 상호 인식 하에, 우리는 물류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해운 항만 분야에 있어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녹색물류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선박의 에너지 절감 운영을 검증하는 등 녹색 물류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삼국은 각국의 녹색 물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3.2.2 고객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 삼국에서 환경 친화적 물류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장관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환경 친화적 물류를 구축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친화적 물류 관련 사업들을 진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부문 간 상호 협력을 장려할 것이다.

3.3 물류보안과 물류효율화의 조화

3.3.1 물류보안에 관한 국제적 환경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물류보안 관련 인력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우리는 삼국의 물류 보안 관련 교육에 대한 정보공유,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삼국의 관련 교육기관 및 전문가들 간의 논의를 적극 장려할 것이다.

3.3.2 우리는 물류보안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삼국의 연구기관과 기업이 물류 보안 관련 기술을 연구하도록 장려 및 협조할 것이다.

3.4 기타 관련 분야

3.4.1 우리는 동북아시아 항만국장회의의 결과를 숙지하였으며, 항만국장회의에서 삼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상육상 복합운송, 마рина 네트워크 및 항만사용료 책정 체계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제13차 동북아시아 항만국장회의를 2012년 10월 7일에서 11일까지 일본 홋카이도에서 개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동북아시아 항만국장회의의 결과를 교통물류장관회의에서 승인하기로 합의하였다.

3.4.2 우리는 동북아시아 물류협력을 위한 공동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삼국 간 물류공동연구 수행지침'을 마련하였다. 우리는 이 지침에 따라 삼국 간 공동연구 과제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공동 연구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3.4.3 나아가, 삼국은 제3자 물류 기업들이 타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딪히는 비물리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5 기타 관련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

3.5.1 범 아시아 물류 체계 통합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하에, 우리는 유닛로드 시스템 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아세안 국가와의 물류협력을 공동으로 모색할 것이다. 또한 물류 분야의 필요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관련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위한 연구를 시작할 것이며 아세안+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10+3) 체제 설립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3.5.2 2011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간의 동북아시아 해상 육상 복합운송 회의를

상기하며,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간의 동북아시아 해상 육상 복합운송 실현을 위하여 정기적 협의가 가능한 정부 간 기구 수립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4개국이 함께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하얼빈에서 합의된 관련 후속조치를 실행하고자 하는 삼국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3.5.3 2011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2차 ASEM 교통장관회의를 상기하며, 우리는 삼국과 관련 지역 간 무역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아시아-유럽 물류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연구팀을 구성할 것이다.

4. 차기 장관회의는 일본에서 개최 될 것이다.

5. 중국 교통운수부 부장과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은 한국의 회의주최 및 환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부속서: 실천과제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2012)

대한민국 국토해양부를 대표하여

권 도 엽

국토해양부 장관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운수부를 대표하여

리 성 린

교통운수부 부장

일본국 국토교통성을 대표하여

하타 유이치로
국토교통성 대신